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
	배포일시	2018. 6. 21.(목)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	담당자	· 과장 최유석, 주무관 : 김태웅, 유욱재 · ☎ (033) 769-5870, 5871, 5875
보도일시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원주국토청, 「강원권 건설안전 워크숍」 개최

- 고용노동지청, 강원도, LH 등 34개기관 안전담당관 100 여명 참석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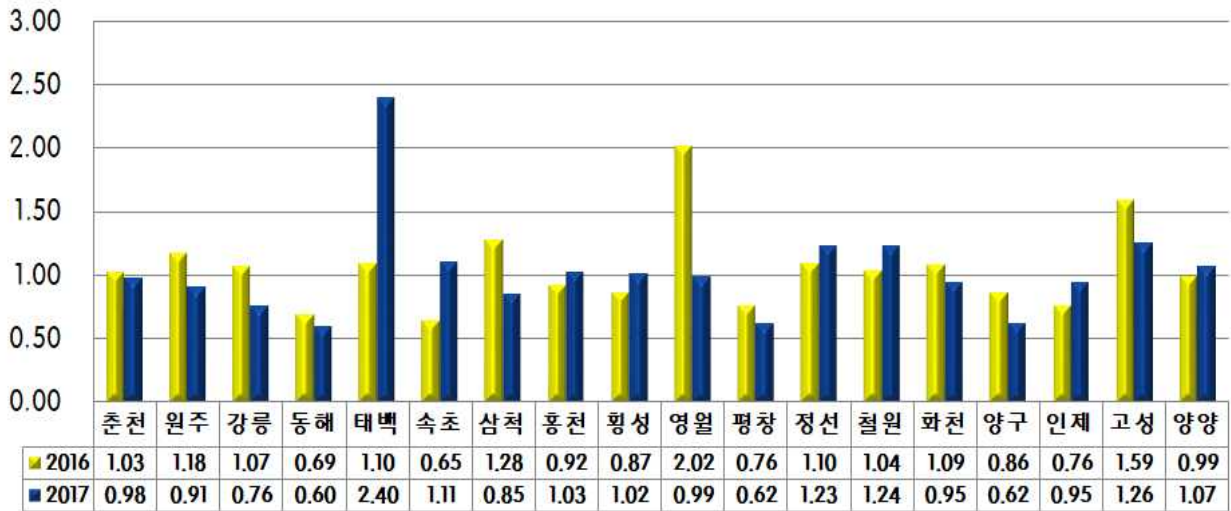
- 원주지방국토관리청(청장 어명소)은 6월 22일(금) 13:00~17:00까지 강릉 농어촌공사 대회의실에서 「강원권 건설안전 워크숍」을 개최한다.
 - 워크숍에는 고용노동지청, 강원도, LH 등 ‘강원권 건설안전협의회’ 16개 기관과 도내 18개 시·군에서 안전담당관 100 여명이 참석한다.
-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이번 행사를 통해 「강원권 건설안전 종합 대책」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,
 - LH·도로공사의 건설안전관리 우수사례 발표 및 안전보건공단의 추락재해 예방교육을 통해 강원권 주요 발주기관의 건설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관심도 제고를 도모한다.
- 한편,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강원권 건설재해율*이 전국 최고**수준인 0.91%라며 도내 각 발주기관 및 시·군의 적극적인 건설현장 안전 점검과 캠페인을 당부하였다.

* 건설재해율: 건설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

** 최근 3년간 연도별 건설 재해율 (전국평균 / 강원권)

- ‘15년(0.74 / 0.89), ‘16년(0.84 / 1.02), ‘17년(0.84 / 0.91)

- 지역별 재해율 현황을 살펴보면, 태백시(2.4), 고성군(1.26), 철원군(1.24), 정선군(1.23)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,
- 재해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동해시(0.6)로, 평창군(0.62)과 양구군(0.62)이 그 뒤를 이었다.



<2016~2017년 건설업 재해율 비교, 자료참고: 고용노동부>

-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향후 고용노동부지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매년 지자체 및 발주기관별로 재해율·사망사고 현황을 공표할 예정이며,
 - 재해율이 높거나 증가폭이 큰 지역과 발주기관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 등 건설안전 관리·감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.
-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도내 건설 관계자들의 안전불감 해소 및 안전관리 능력향상을 위해 교육과 캠페인을 계속해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